

# 택시운전근로자의 감정노동, 우울과 자기효능감에 따른 건강증진행위 영향요인

서해주\*, 김자숙\*\*, 김자옥\*\*\*, 김학선\*\*\*, 조인영\*\*, 김혜숙\*\*\*\*

경희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동강대학교 간호학과\*\*, 원광보건대학교 간호학부\*\*\*, 목포카톨릭대학교 간호학과\*\*\*\*

## Effects of Emotional Labor, Depression and Self - Efficacy on Health Promotion Behavior of Taxi Driving Workers

Hae-Joo Suh\*, Ja-Sook Kim\*\*, Ja-Ok Kim\*\*\*, Hack-Sun Kim\*\*,  
In-Young Cho\*\*, Hye-suk Kim\*\*\*\*

Department of Nursing, Graduate school Kyunghee University\*  
Department of Nursing, Dongkang College\*\*

Department of Nursing, Wonkwang Health Science university\*\*\*  
Department of Nursing, Mokpo Catholic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에서는 택시운전근로자의 감정노동, 우울, 자기효능감에 따른 건강증진행위 영향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도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자는 G 광역시 택시운전근로자 102명이며, 자료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자가보고식으로 이루어졌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택시운전근로자의 감정노동은 평균 3.22점, 우울은 평균 0.33점, 자기효능감은 평균 2.77점, 건강증진행위 수준은 평균 2.74점으로 나타났다. 건강증진행위와 관련 변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감정노동과 우울, 자기효능감과 건강증진행위는 양의 상관관계, 감정노동과 자기효능감, 감정노동과 건강증진행위, 우울과 자기효능감, 우울과 건강증진행위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자기효능감, 감정노동, 배우자 유무는 건강증진행위를 57.0% 설명하고 있다. 본 연구결과 택시운전근로자의 자기효능감이 건강증진행위 영향요인으로 파악되나 택시운전근로자의 자기효능감을 증대시키기 위한 간호 중재 전략과 감정노동을 감소시키고 건강증진행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간호중재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택시운전근로자, 감정노동, 우울, 자기효능감, 건강증진행위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factors affecting health promotion behavior according to emotional labor, depression, and self - efficacy of taxi drivers. Study participants were 102 Taxi drivers in urban areas, and the data were collected through self-reported structured questionnaire. According to the results, among the variables related to Health promotion behaviors, Meaningful positive correlations were found among Health promotion behaviors and Emotional Labor, Depression, Self-efficacy, but Emotional Labor and Depression, Self-efficacy and Health promotion behaviors showed positive correlations. Emotional Labor and Self-efficacy, Emotional Labor and Health promotion behaviors, Depression and Self-efficacy, Depression and Health promotion behaviors showed negative correlations. In addition, the factors such as spouse, Emotional Labor, Self-efficacy explained Health promotion behaviors 57%. Based on the findings from the study, in order for taxi drivers to improve health promotion behaviors education program should be made with strategies increasing Self-efficacy and decreasing Emotional labor.

**Key Words** : Depression, Emotional Labor, Health Promotion Behaviors, Self-efficacy, Taxi drivers

Received 1 July 2017, Revised 1 August 2017  
Accepted 20 August 2017, Published 28 August 2017  
Corresponding Author: Ja-Sook Kim  
(Department of Nursing, Dongkang College)  
Email: jskim-98@hanmail.net

ISSN: 1738-1916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2017년 1월 택시운전근로자는 총 277,620명이며[1] 통계청 용도별 교통사고 현황에 의하면 2015년 12월 사업용 차량 중 택시에 의한 교통사고율은 55.21%, 사망자율 26.32%, 부상자율 53.58%로 높았다[2]. 이는 택시운전근로자의 교통사고 횟수가 불안전 운전행동과 직무 요인, 수면 요인, 정신건강 요인, 건강습관 요인에 의해 직·간접적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3].

택시운전근로자는 타 직종 근로자에 비하여 고객응대과정 속에서 감정 숨김, 감정연류, 화난 고객 상태 등과 같은 감정 노동의 경험빈도가 높다[4]. 또한 불규칙한 식사, 8시간 이상의 근무시간, 교통 혼잡, 너무 많은 속도 차단기, 무례한 태도 등으로 인해서 위장증상, 근육결계 증상, 우울증이 보고되어[5] 건강위험도가 타 직종보다 높다.

감정노동이란 대인간 상호작용 동안 조직이 요구하는 감정을 표현하는데 필요한 노력, 계획 및 통제정도를 말한다[6]. 일반 국민의 발이 되어 주는 버스와 택시 운전기사들이 심각한 감정노동에 시달리고 있어[7] 감정노동자 보호 법안이 2016년 11월 29일 발의되었다. 주요 내용으로 감정노동이란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는 고객을 대면, 통화, 통신 등의 수단을 통해서 응대하는 과정 중 자신이 실제로 느끼는 감정과는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요구된다. 또한 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하는 노동형태를 말하고 감정노동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감정노동을 수행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최근 감정노동 연구는 주로 간호사[8], 미용실 종사자[9]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택시운전근로자의 감정노동은 미비하다.

우울은 감정노동을 하는 집단에서 높게 보이는데 개인의 자발성으로부터 표출이 아닌 외부의 힘에 의해 강요된 노동으로 나타나는 경우 그 것 자체가 개인의 우울 정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10]. 또한 폭력유형(인격유시·폭언, 폭행, 범죄행위), 흡연, 음주, 운동여부, 수면시간, 근무시간, 실체소득이 우울과 상관관계를 보였[11]. 그러나 택시운전근로자의 우울과 감정노동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는 없었다.

자기효능감[12]은 주어진 목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

는데 필요한 일련의 행위로써 이는 직무를 실행해 나가는 자신감의 지각정도로 건강증진행위를 실천하기 위한 결정 요인[13]으로 소방공무원의 건강증진행위 영향 요인 연구에서도 지지된 중요한 변수이다[14]. 그러나 현재까지 자기효능감과 건강증진행위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교정공무원[15], 간호사[16], 학령후기 아동[17], 전의경[18], 간호대학생[19] 등이다. 이렇게 건강증진행위에 가장 큰 영향 요인으로 자기효능감이 여러 연구결과에서 보여지고 있으나 택시운전근로자의 건강증진행위 영향 요인으로 자기효능감을 규명한 연구는 이뤄지지 않았다. 지각된 자기효능감은 직접으로 건강증진행위를 동기화시키고 행위의 지속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자기 효능감을 지속하고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자기 효능감을 증진시키는 전략이 포함된 건강증진프로그램의 활성화가 건강증진행위의 촉진효과를 높일 수 있다[19].

건강증진행위는 개인이나 집단이 건강의 유지 및 향상을 위해 조화로운 정서와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질병치료 및 관리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20]. Ko(2009)의 택시운전기사 연구에 의하면 건강상태가 비교적 불량하며 건강증진행위와 건강지각의 개선이 매우 시급하다고 하였다[21]. 따라서 본 연구는 택시운전근로자의 감정노동, 우울과 자기효능감이 건강증진행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함으로써 택시운전근로자의 건강증진행위 향상을 위한 간호중재를 개발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 1.2 연구 문제와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택시운전근로자의 감정노동, 우울, 자기효능감 및 건강증진행위를 파악하고 감정노동, 우울, 자기효능감 및 건강증진행위의 관계를 분석하며 건강증진행위 영향 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 연구 문제에 따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 1) 택시운전근로자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감정노동, 우울과 자기효능감에 따른 건강증진행위의 차이는 어떠한가?
- 2) 택시운전근로자의 감정노동, 우울과 자기효능감에 따른 건강증진행위 영향요인은 어떠한가?

#### 연구목적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 2) 대상자의 감정노동, 우울, 자기효능감 및 건강증진 행위 정도를 파악한다.
-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건강증진행위 차이를 비교한다.
- 4) 대상자의 건강증진행위와 관련 변인간의 관계를 규명한다.
- 5) 대상자의 건강증진행위 영향 요인을 규명한다.

## 2. 연구 방법

###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택시운전근로자의 감정노동, 우울, 자기효능감 및 건강증진행위 정도를 파악하고 건강증진행위 영향 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 2.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G 광역시 택시운전근로자로서 설문 문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정신적인 문제가 없는 102명을 대상으로 임의 표집 하였다.

표본의 크기는 G\*Power3.1.9.2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에 필요한 표본크기를 구한 결과 유의수준 .05, 검정력 .80, 효과크기 .15, 회귀분석에 이용한 독립변수 5개를 기준으로 했을 때 표본수가 92명이었다. 이에 탈락률을 고려하여 11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설문지는 110부를 배부하여 110부가 회수되었으며, 이중 응답이 불성실한 설문지 8부를 제외한 총 102부( 92.7%)를 최종적으로 분석에 사용하였다.

### 2.3 연구 도구

#### 2.3.1 감정노동

감정노동은 Morris와 Feldman(1996)[6]의 연구를 토대로 Kim(1998)[22]이 한국 성인의 특성에 맞게 사회문화적 배경을 고려하여 개발한 측정도구를 이용하였다. 감정표현의 빈도 3문항, 감정표현의 주의성 3문항, 감정적 부조화 3문항의 총 9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대체로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의 5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감정노동의 점수범위는 최소 9점에서 최대 45점이다. 도구 개발 당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는 .82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는 .80였다.

#### 2.3.2 우울

Beck의 우울 척도(Beck Depression Inventory ;BDI)[23]는 자기보고식 질문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질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Lee (1995)[24] 등에 의해 번안된 한국판 Beck의 우울 척도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BDI는 우울의 인지적 증상, 정서적 증상, 동기적 증상, 자존심 저하 및 신체적 증상들을 포괄적으로 측정하며 부정적 자기상 5문항, 실행장애 6문항, 죄책감/정신운동지연 5문항, 신체상증상 4문항 총 20문항이다. 각 문항은 0~3점 평정척도로 0에서 60점까지 분포 가능하다. 점수가 높을수록 더 우울함을 나타낸다. 도구개발당시의 집단별 신뢰도 일반인 집단에서 Cronbach’s  $\alpha$  .78이었고, 우울 환자 집단에서는 Cronbach’s  $\alpha$  .85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는 .91이었다.

#### 2.3.3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은 어떤 결과를 얻고자 하는 행동과정을 성공적으로 조직하고 수행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판단으로 본 연구에서는 Sherer 등(1982)[25]이 개발하고 Kim(1994)[26] 수정·보완한 일반적 자기효능감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이는 일반적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자기효능감이라는 2요인으로 구분되며 총 13문항 4점 척도로,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 4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의 4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자기효능감의 점수범위는 최소 13점에서 최대 52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을 높게 지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98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93이었다.

#### 2.3.4 건강증진행위

건강증진행위 측정은 Pender(1996)[13]의 Health Promoting Lifestyle Profile II(HPLP-II)를 Lee (1989)[27]가 한국 성인의 특성에 맞게 사회 문화적 배경을 고려하여 번역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는 자아실현 문항 11문항, 건강 책임 10문항, 운동 5문항, 영양 7문항, 대인관계 6문항, 스트레스 관리 7문항이 포함된 총 46문항 4점 척도로,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 4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까지 점수 범위는 최저 46점에서 최고 184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증진행위 정도를 높게 지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90이였으며,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94이였다.

#### 2.4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기간은 2014년 12월부터 2015년 3월까지 광주에 있는 택시운전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질문지는 대상자들이 직접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작성시간은 약 30분 정도 소요되었다. 자료 수집을 위해 대상자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회수된 자료는 익명으로 처리될 것이며 연구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응답과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경우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고, 연구의 목적으로만 자료를 사용할 것임을 설명하였고 연구대상자에게 서면 동의를 구한 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참여 대상자를 최대한으로 보호하였다.

#### 2.5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 백분율, 평균 및 표준편차로 제시하였다.
- 2) 대상자의 감정노동, 우울, 자기효능감 및 건강증진행위는 평균, 표준편차, 최댓값, 최솟값으로 제시하였다.
-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건강증진행위 정도의 차이분석은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로 분석하였으며, 사후검정은 Scheffe' test로 분석하였다.
- 4) 대상자의 감정노동, 우울, 자기효능감 및 건강증진행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으로 분석하였다
- 5) 대상자의 건강증진행위 영향요인은 다중 공선성 진단 후 단계적 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 2.4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광주지역의 택시운전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임의표출 하였고, 연구대상자의 지역과 근무 환경의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었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 하는데 제한점이 있다.

### 3. 연구 결과

####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연령은 40세 미만 11명(10.8%), 40세 이상 49세 이하 17명(16.7%), 50세 이상 59세 이하 49명(48.0%), 60세 이상 25명(24.5%)이고 평균 53.6±9.30세이였으며, 성별에서는 남성이 100명(98%), 여성이 2명(2.0%)이었다. 배우자 유무는 있다 87명(85.3%), 없다 15(14.7%)이고, 종교는 있다 61명(59.8%), 없다 41명(40.2%)이고, 학력은 중졸 이하는 39명(38.2%), 고졸 이상은 63명(61.8%)이었다. 택시유형은 회사소유 택시 30명(29.4%), 개인소유 택시 72명(70.6%)이고, 근무경력은 10년 이하 33명(32.4%), 10년 초과 20년 이하 28명(27.5%), 20년 초과 30년 이하 26명(25.5%), 평균 17.2±10.85년이고 월별 야간 근무 일수는 15일 미만 56명(54.9%), 15일 이상 46명(45.1%), 평균 야간 근무일수는 14.2±5.40일 이고 하루 동안 운행시간은 10시간 이하 26명(25.5%), 10시간 초과 76명(72.5%), 평균 12.5±2.55시간 기어변속 유형에서는 수동 11명(10.8%), 자동 91명(89.2%)이었다. 월별 수입에서는 100만원 미만 16명(15.7%), 100만원 이상 149만원 이하 48명(47.1%), 150만원 이상 199만원 이하 22명(21.6%), 200만원 이상 16명(15.6%), 건강인식에서는 건강하다 45명(44.1%), 보통이다 45명(44.1%), 건강하지 않다 6명(5.9%), 주당 운동회수 없다 21명(20.6%), 1~2회 62명(60.8%), 3회 이상 19명(18.6%), 음주 유무에서는 마신다 68명(66.7%), 안 마신다 34명(33.3%), 흡연 유무에서는 피운다 49명(48.0%), 안 피운다 53명(52.0%)이다. 취미유무에서는 있다 78명(76.5%), 없다 24명(23.5%), 직업에 대한 기대감에서는 희망적이다 18명(17.6%), 희망적이지 않다 34명(33.3%), 현재상태만 유지하면 좋겠다 39명(38.2%), 모르겠다 10명(9.8%)이고 근육통 유무에서는 있다 41명(40.2%), 없다. 61명(59.8%), 말다툼 유무에서는 말다툼을 했다 50명(49.0%), 하지 않았다 52명(51.0%)이고 우울정도에서는 우울하지 않다(0~9점) 67명 65.7%, 경증우울(10~15점) 16명(15.7%), 중증우울(16~23점) 17명(16.7%), 매우 심한 우울(24~60점) 2명(2%)이었다<Table 1>.

&lt;Table 1&gt; General Characteristics

(n=102)

Characteristics	Category	n	%	M± SD
Age (yr)	<40	11	10.8	53.6±9.30 (yr)
	40-49	17	16.7	
	50-59	49	48.0	
	≥60	25	24.5	
Gender	M	100	98.0	
	F	2	2.0	
Spouse(배우자)	Yes	87	85.3	
	No	15	14.7	
Religion	Yes	61	59.8	
	No	41	40.2	
Education	≤Middle school graduate	39	38.2	
	≥ High school graduate	63	61.8	
Taxi type	Company	30	29.4	
	Individual	72	70.6	
Duration of work (yr)	≤10	33	32.4	17.2±10.85 (yr)
	>10, ≤20	28	27.5	
	>20, ≤30	26	25.5	
	>30	15	14.7	
Night Duty(day)	<15	56	54.9	14.2±5.40 (day)
	≥15	46	45.1	
Day running time(hour)	≤10	26	25.5	12.5±2.55 (hour)
	>10	76	74.5	
Gear operation	Manual	11	10.8	
	Automatic	91	89.2	
Income (Month, 10,000won)	<100	16	15.7	
	100-149	48	47.1	
	150-199	22	21.6	
	≥200	16	15.6	
Health recognition	Healthy	45	44.1	
	moderate healthy	51	50.0	
	Unhealthy	6	5.9	
Times of exercise(week)	None	21	20.6	
	1-2 times	62	60.8	
	≥3 times	19	18.6	
Drinking status	Yes	68	66.7	
	No	34	33.3	
Smoking status	Yes	49	48.0	
	No	53	52.0	
Hobby status	Yes	78	76.5	
	No	24	23.5	
Career expectation	Hopeful	18	17.6	
	Pessimistic	34	33.3	
	Maintain	39	38.2	
	Don't -know	10	9.8	
Muscle pain	Yes	41	40.2	
	No	61	59.8	
Argument experience	Yes	50	49.0	
	No	52	51.0	
Depression	None(0~9)	67	65.7	
	Mild(10~15)	16	15.7	
	Severe(16~23)	17	16.7	
	Very Severe(24~60)	2	2.0	

<Table 2> Degree of Emotional Labor, Depression, Self-efficacy and Health Promotion Behavior (n=102)

Variables	M±SD	Minimum	Maximum	Range
Emotional Labor	3.22±0.57	1.89	4.78	1~5
	29.02±5.10	17.00	43.00	9~45
Depression	0.33±0.37	0.00	1.20	0~3
	6.71±7.49	0.00	24.00	0~60
Self-efficacy	2.77±0.44	1.46	4.00	1~4
	36.03±5.67	19.00	52.00	13~52
Health Promotion Behavior	2.74±0.31	1.96	3.43	1~4
	126.12±14.28	90.00	158.00	46~184

### 3.2 대상자의 감정노동, 우울, 자기효능감 및 건강증진행위 정도

대상자의 감정노동은 5점(45점) 만점에 최소 1.89점(17점), 최대 4.78점(43점)이며, 평균 3.22±0.57(29.02±5.10) 점으로 나타났다. 우울은 3점(60점)만점에 최소 0.00점(0.00점), 최대 1.2점(24점), 평균 0.33±0.37(6.71±7.29)점으로 나타났고 자기효능감은 4점(52점)만점에 최소 1.46점(19점), 최대 3.43점(158점), 평균 2.74±0.31(126.12±14.28)점으로 나타났다<Table 2>.

### 3.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건강증진행위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건강증진행위는 배우자 유무(t=2.74, p=.010), 택시유형(t=-2.71, p=.008), 근무 경력(F=4.74, p=.004), 취미 유무(t=2.30, p=.023), 말다툼 유무(t=-2.47, p=.015), 우울정도(F=9.63, p<.001)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유의한 변수에 대해 사후 검정한 결과, 근무경력에서는 10년 초과 20년 이하 집단이 10년 이하 집단보다 건강증진행위가 높았고, 20년 초과 30년 이하 집단이 10년 이하 집단보다 건강증진행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에서는 우울이 없는 집단이 경증 우울집단과 중증 이상 우울집단 보다 건강증진행위가 높았다<Table 3>.

### 3.4 대상자의 감정노동, 우울, 자기효능감 및 건강증진행위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감정노동, 우울, 자기효능감, 건강증진행위간의 상관관계는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감정노동과 우울(r=.35, p<.001)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감정노동이 높을수록 우울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정노동과 자기효능감(r=-.28, p=.004), 감정노동과 건강증진행위(r=-.47, p<.001)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감정노동이 높아질수록 자기효능감과 건강증진행위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과 자기효능감(r=-.57, p<.001), 우울과 건강증진행위(r=-.43, p<.001)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우울이 높아질수록 자기효능감과 건강증진행위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효능감과 건강증진행위(r=.68, p<.001)와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건강증진행위가 높아지는 것을 나타냈다<Table 4>.

### 3.5 대상자의 건강증진행위 영향 요인

단변량 분석에서 건강증진행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던 감정노동, 우울, 자기효능감, 배우자유무, 택시유형, 근무 경력, 취미 유무, 말다툼 유무를 독립변수로 투입하였고 건강증진행위를 종속변수로 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산출된 택시운전근로자의 건강증진행위 회귀모형은 유의 하였고(F=45.69, p<.001), 독립변수에 대한 회귀분석의 가정을 검증하기 위하여 잔차의 등분산성, 정규분포성, 다중공선성을 진단 분석한 결과, 공차한계(tolerance)의 범위가 0.88~0.94로 0.1 이상 이었으며, 분산팽창인자(Variation Inflation Factor, VIF)는 기준치인 10을 넘지 않아 다중 공선성의 문제가 존재하지 않았다. 잔차 분석 결과, Durbin Watson 검정결과 2.03으로 2에 가까워 모형의 오차항 간에 자기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잔차와 등분산성과 정규분포성 가정을 만족하였다. 택시운전근로자의 건강증진행위의 가장 큰 예측요인으로는 자기효능감( $\beta=.624$ )으로 정적 상관관계가 있고 감정노동( $\beta=-.259$ )과 배우자 유무( $\beta=-.204$ )는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강증진행위(Adj. R<sup>2</sup> =.57, F=45.69, p<.001)을 57.0%설명하였다<Table 5>.

<Table 3> Difference of Health Promotion Behavior by General Characteristics

(n=102)

Characteristics		Health Promotion Behavior		
		M±SD	t or F	p(sig.)
Age (yr)	<40	120.27±6.84		
	40-49	122.41±13.96	1.43	.237
	50-59	127.33±15.51		
	≥60	128.84±13.83		
Spouse	Yes	127.23±14.78	2.74	.010
	No	119.67±8.75		
Religion	Yes	128.21±14.10	1.83	.070
	No	123.00±14.14		
Education	Middle school graduate	124.64±15.23	-.82	.414
	≥ High school graduate	127.03±13.70		
Taxi type	Company	120.37±12.42	-2.71	.008
	Individual	128.51±14.39		
Duration of work (yr)†	≤10 <sup>ⓐ</sup>	118.82±12.09	4.74	.004
	>10, ≤20 <sup>ⓑ</sup>	129.57±13.89	a<b, a<c	
	>20, ≤30 <sup>ⓒ</sup>	129.31±13.40		
	>30 <sup>ⓓ</sup>	130.20±16.06		
Night Duty(day)	<15	124.80±12.57	-1.00	.320
	≥15	127.72±16.12		
Day running time(hr)	≤10	127.15±13.68	.43	.670
	>10	125.76±14.55		
Gear operation	Manual	125.91±13.11	-.05	.957
	Automatic	126.14±14.48		
Income (Month, 10,000won)	<100	123.00±16.77	.41	.747
	100-149	125.90±13.83		
	150-199	127.73±16.30		
	≥200	127.69±10.14		
Health recognition	Healthy	128.93±12.66	1.67	.194
	moderate healthy	124.16±15.22		
	Unhealthy	121.67±16.03		
Times of exercise	None	121.76±14.89	1.33	.269
	1-2 times	126.87±14.37		
	≥3 times	128.47±12.97		
Drinking status	Yes	125.29±13.61	-.82	.413
	No	127.76±15.62		
Smoking status	Yes	124.33±13.49	-1.22	.225
	No	127.77±14.90		
Hobby status	Yes	127.88±13.86	2.30	.023
	No	120.38±14.83		
Career expectation	Hope full	129.33±99.91	2.19	.095
	Pessimistic	121.32±14.26		
	Maintain	128.90±13.57		
	Don't know	127.50±20.07		
Muscle pain	Yes	124.51±14.61	-.93	.354
	No	127.20±14.07		
Argument experience	Yes	122.64±14.19	-2.47	.015
	No	129.49±13.67		
Depression†	None(0~9) <sup>ⓐ</sup>	130.15±12.53	9.63	<.001
	Mild(10~15) <sup>ⓑ</sup>	120.88±13.81	a>b, a>c	
	≥Severe(16~60) <sup>ⓒ</sup>	116.32±14.95		

† Scheffe' test

<Table 4> Correlation among Emotional Labor, Depression, Self-efficacy and Health Promotion Behavior (n=102)

	Emotional Labor	Depression	Self-efficacy	Health Promotion Behavior
	r (sig.)			
Emotional Labor	1	.35(<.001)	-.28(.004)	-.47(<.001)
Depression		1	-.57(<.001)	-.43(<.001)
Self-efficacy			1	.68(<.001)
Health Promotion Behavior				1

<Table 5> Effects on Health Promotion Behavior of Subject (n=102)

Variables	B	SE	$\beta$	R <sup>2</sup>	Adj. R <sup>2</sup>	t	p(sig.)
Self efficacy	1.572	.173	.624	.458	.452	9.064	<.001
Emotional Labor	-.727	.195	-.259	.544	.535	-3.723	<.001
Spouse †	-8.174	2.697	-.204	.583	.570	-3.030	.003
Adj. R <sup>2</sup> = .570, F=45.69, p<.001							

† Dummy variable(1: Yes, 0: No)

#### 4. 논의

본 연구에서는 택시운전근로자의 감정노동, 우울, 자기효능감과 건강증진행위 정도를 파악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며 건강증진행위 영향 요인을 파악하여 감정노동, 우울을 감소시키고 자기효능감과 건강증진행위를 증가시키기 위한 건강관리 중재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하였다.

택시운전근로자의 일반적 유형에 따른 건강증진행위는 배우자가 있으면 더 건강증진행위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2.74, p=.010). 이는 배우자가 있으면 더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겠다는 의지와 책임감이 생기고 서로의 건강을 챙겨주면서 함께 건강증진행위를 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결과는 결혼상태가 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택시운전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와 다르게 나타났다[21]. 이는 추후 반복 연구를 통해서 재검증 할 필요가 있다. 택시유형이 개인소유 택시근로자가 회사소유 택시근로자보다 건강증진행위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2.71, p=.008). 이는 개인소유 택시 일수록 경제적·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건강증진행위를 더 많이 한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결과에서 월별 수입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월별 수입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건강증진행위 정도가 높았다. 이는 전의경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 같이 경제적

이 있는 집단이 대인관계지지와 스트레스 관리 등 역경에 대해 여유롭게 대처한 것과 유사하다[18]. 택시운전근로자의 근무경력이 높을수록 건강증진행위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4.74, p=.004). 이는 운전경력이 많을수록 대체적으로 나이가 많기 때문에 건강을 관리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 또한 근무경력 관리를 통해서 개인소유의 택시를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택시근로자가 건강증진행위를 할 수 있는 근무조건과 회사에 날마다 지불해야 되는 사납금에 대한 경제적 부담감이 감소되었다. 따라서 시간적 경제적 여유를 통한 건강증진행위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된다. 택시운전근로자들이 취미가 있을수록 건강증진행위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t=2.30, p=.023) 이는 취미를 통한 감정노동과 우울 등이 감소되어 건강증진행위를 높이는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결과 감정노동과 우울은 건강증진행위에 있어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택시운전근로자의 말다툼 경험 이 없을수록(t=-2.47, p=.015) 건강증진행위를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말다툼을 할수록 감정노동이 심해지고 따라서 건강증진행위를 감소시킨다. 이는 감정노동이 높을수록 건강증진행위는 낮아진다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와 일치한다[28]. 택시운전근로자의 우울이 덜 할수록 건강증진행위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9.63, p<.001). 이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우울과 건강증진행위가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결과와



동일하다[29].

택시운전근로자의 감정노동은 총 45점 만점에 29.02점, 5점 만점에 평균 3.22점으로 높았으며, 이러한 결과는 노인요양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30] 26.23점보다 2.8점 정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택시운전근로자는 대인서비스를 담당하는 타 직종 근로자에 비하여 정신적·신체적 폭력을 많이 경험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4]. 그들은 고립된 공간에 혼자 운전을 하면서 폭력, 폭언 등의 감정노동을 당하더라도 신고행위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손실이 크므로 대부분 참고 일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상자의 우울은 0~9점 없다 67명(65.7%), 경중 우울 10~15점 16명(15.7%), 중중 우울 16~23점 17명(16.7%), 극심한 우울 24~60점, 2명(2.0%)로 나타났다. 택시근로자의 우울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선행연구에서 택시운전근로자의 우울은 수면시간, 근무시간, 실제 소득과 상관관계가 있으며[11], 노동시간이 길수록 우울 증상 발생위험이 증가한다[18]. 본 연구에서 야간근무를 한 달에 15일 이상 일하는 비율이 45.1%로 대부분이 수면시간에 영향을 받고 있으므로 우울정도가 높아졌다. 또한 본 연구에서 평균 근로 시간은 12.5시간으로 보통 정규 노동시간 8시간 보다 4시간 더 많은 노동을 하고 있으나 실제 소득에 있어서는 150만원 미만이 62.8%로 나타나서 노동시간은 길고 실제 소득은 낮은 것을 보였다. Han(2016)의 택시근로자의 연구에서도 소득이 낮을수록 우울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31].

대상자의 자기효능감은 평균 2.77점으로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연구한[14] 3.04점, 전의경을 대상으로 연구한[18] 3.74점보다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이는 전문직으로 인식되고 대부분 대졸 이상자로 구성된 소방공무원, 전의경과 달리 택시운전근로자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비전문직이라는 사회적 인식과 대부분 중졸 이하, 고졸 이하의 낮은 학력을 소유했기 때문이다. 또한 경제력이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다는 선행연구[18]와 같이 실제 소득이 낮은 택시운전근로자가 자기효능감이 낮았다.

택시운전근로자의 건강증진행위 영향 요인의 설명변수로는 자기효능감, 감정노동, 배우자 유무가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또한 자기효능감과 건강증진행위의 상관관계를 본 연구 중 전의경을 대상으로 한 김영진[18]의 연구 ( $r=.22, p<.001$ ),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황선영[32]의

연구( $r=.28, p<.001$ ), 정의정 등 [33]의 연구( $r=.23, p<.001$ )에서 자기효능감과 건강증진행위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도 자기효능감이 건강증진행위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나타났다( $r=.22, p<.001$ ). 감정노동과 건강증진행위의 상관관계를 본 연구 중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홍은영의 연구[16]( $r=-.18, p<.005$ )와 같이 본 연구에서도 감정노동은 건강증진행위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r=-.47, p<.001$ ). 따라서 택시운전근로자의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시 감정노동을 감소시키고 자기효능감을 극대화시킴으로써 건강증진행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함께 모색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택시운전근로자의 감정노동, 우울, 자기효능감 및 건강증진행위 정도를 파악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며 건강증진행위 영향 요인을 파악하여 택시운전근로자의 다양한 건강관리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근거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도하였다. 연구결과 택시운전근로자의 감정노동과 우울, 자기효능감과 건강증진행위는 양의 상관관계, 감정노동과 자기효능감, 감정노동과 건강증진행위, 우울과 자기효능감, 우울과 건강증진행위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자기효능감, 감정노동, 배우자 유무는 건강증진행위를 57.0%설명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택시운전근로자의 자기효능감이 건강증진행위 영향 요인으로 파악된바 택시운전근로자의 자기효능감을 증대시키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감정노동을 감소시키고 건강관리를 증진하기 위한 간호중재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택시운전근로자 일부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점이 있으며 이상의 결과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한다.

첫째, 택시운전근로자의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기 위한 간호중재 개발을 제언한다.

둘째, 택시운전근로자의 감정노동을 감소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감정노동 관리 프로그램 개발을 제언한다.

## REFERENCES

- [1] Korea National Joint Conference of Taxi association, The number of a taxi driver across the country, Korea National Joint Conference of Taxi Association, [http://www.taxi.or.kr/04/01\\_view.php?no=127](http://www.taxi.or.kr/04/01_view.php?no=127)(Apr 3, 2017)
- [2]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By the Parties to the monthly traffic accident,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_01List.jsp?vwcd=MT\\_ZTITLE&parmTabId=M\\_01\\_01#SubCont](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_01List.jsp?vwcd=MT_ZTITLE&parmTabId=M_01_01#SubCont)(Aug 03, 2016)
- [3] K. W. Youn, S. Y. Lee, S. H. Yim, "Human Factors Involved in Traffic Accidents and Unsafe Driving Behaviors of Taxi Drivers", *Korean Society of Occupational & Environmental Medicine*, Vol. 18, No. 4, pp. 307-317, 2006.
- [4] B. K. Lee, "The Effects of Customer Contact Service to the Mental Health among Korean Taxi Drivers", *Korean Journal of Occupational Nursing*, Vol. 25, No. 2, pp. 108-117, 2016.  
DOI:[http://koreascience.or.kr/article/ArticleFullRecord.jsp?cn=KSONHT\\_2016\\_v25n2\\_108](http://koreascience.or.kr/article/ArticleFullRecord.jsp?cn=KSONHT_2016_v25n2_108)
- [5] M. S. Bawa, M. Srivastav, "Study the Epidemiological Profile of Taxi Drivers in the Background of Occupational Environment, Stress and Personality Characteristics", *Indian Journal of Occupational & Environmental Medicine*, Vol. 17, No. 3, pp. 108-113, 2013.  
DOI: [10.4103/0019-5278.130855](https://doi.org/10.4103/0019-5278.130855).
- [6] J. A. Morris, D. C. Feldman, "The Dimension,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Emotional", *Labor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Vol. 21, No. 4, pp.986-1010, 1996.  
DOI:[10.5465/AMR.1996.9704071861](https://doi.org/10.5465/AMR.1996.9704071861)
- [7] Safety Information, It's urgent to prepare a Emotional protection bill, Safety Information, <http://www.safety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6789>.(Oct 28, 2016)
- [8] Y. J. Oh, Y. H. Choi, "Effects of Emotional labor, Job, Stress and Burnout on Somatization in Nurses : In convergence era",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3, No. 10, pp. 415-424, 2015.  
DOI:<http://dx.doi.org/10.14400/JDC.2015.13.10.415>
- [9] E. J. Yoo, S. N. Shim, S. K. Kim, "The Effect of the Beauty Salon Worker's Emotional Labor, Job Stress, Job Burnout and Social Support on Turnover Intentio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2, No. 12, pp. 427-439, 2014.  
DOI:<http://dx.doi.org/10.14400/JDC.2014.12.12.427>
- [10] M. S. Yoon, N. H. Kim, "The Moderating Effect of Client Viole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Labor and Depression among Social Workers", *Korean Association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 Vol. 19, No. 4, pp. 187-221, 2016.  
DOI:<http://www.dbpia.co.kr/Article/NODE07093116>
- [11] M. J. Lee, G. W. Yoon, "Depression and Violence Experience of Taxi Labor, Conference Collection of Dissertations", *Korean Society of Occupational & Environmental Medicine*, Vol. 2012, No. 11, pp. 296-297, 2012.
- [12] A. Bandura,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Vol. 84, No. 2, pp. 191-215, 1977.
- [13] V. J. Strecher, B. M., DeVellis, M. H. Becker, I. M. Rosenstock, "The Role of Self-efficacy in Achieving Health Behavior Change", *Health Education Quarterly*, Vol. 13, No. 1, pp. 73-92, 1986.
- [14] J. O. Kim, J. S. Kim, A. Y. Park, S. J. Han, "Influencing Factors on Health Promotion Behavior of Fire Officers", *Korean Journal of Occupational Nursing*, Vol. 22, No. 3, pp. 218-227, 2013.  
DOI:<http://dx.doi.org/10.5807/kjohn.2013.22.3.218>
- [15] N. J. Pender, *Health promotion in nursing practice* (3rd ed), Connecticut: Appleton and Lange Stamford, 1996.
- [16] E. Y. Hong, "Factors Affecting Nurse's Health Promoting Behavior : Focusing on Self-efficacy and Emotional Labor", *Korean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Nursing* Vol. 23, No. 3, pp. 154-162, 2014.  
DOI: [http://koreascience.or.kr/article/Article\\_FullRecord.jsp?cn=KSONHT\\_2014\\_v23n3\\_154](http://koreascience.or.kr/article/Article_FullRecord.jsp?cn=KSONHT_2014_v23n3_154)

- [17] G. B. Wie, "A Study on the Factors Related to Self-Efficacy and Health Promotion Behavior of the Late School-Aged Children",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Vol. 7, No. 1, pp. 45-58, 2013.  
DOI: <http://dx.doi.org/10.12811/kshsm.2013.7.1.045>
- [18] Y. J. Kim, "A Study of Relations Between a Health Promoting Behaviors and Self-efficacy of Conscripted Policemen",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4, No. 2 pp. 778-785, 2013.  
DOI:[http://koreascience.or.kr/article/ArticleFullRecord.jsp?cn=SHGSCZ\\_2013\\_v14n2\\_778](http://koreascience.or.kr/article/ArticleFullRecord.jsp?cn=SHGSCZ_2013_v14n2_778)
- [19] J. W. Oh, Y. S. Moon, "A Predictive Model of Health Promotion Behavior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2, No. 10, pp. 391-403, 2015.  
DOI:<http://dx.doi.org/10.14400/JDC.2014.12.10.391>
- [20] Y. M. Ha, H. K. Choi, "Relationships among Self Efficacy, Social Support, and Health Promoting Behaviors in Correctional Officers", *Korean Journal of Occupational Nursing*, Vol. 23, No. 3, pp.163-170, 2013.  
DOI: <http://koreascience.or.kr/article/ArticleFullRecord.jsp?cn=KSONHT2014v23n3163>
- [21] J. K Ko, "Analysis of Factors Affecting the Health Behavior of Taxi-drivers,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Vol. 15, No. 2, pp. 71-81, 2009.
- [22] M. J Kim, "Effects of the Hotel Employees' Emotional Labor, upon the Job-related Attitudes", *Journal of Tourism Sciences*, Vol. 21, No. 2, pp. 129-141, 1998.
- [23] A. T, Beck, C. H. Ward, M. J, Mook, J. Erbaugh, "An Inventory for Measuring Depression", *Arch Gen Psychiatry*, Vol. 4, No. 6, pp. 561-571, 1961.
- [24] M. K. Lee, Y. H. Lee, S. H. Park, C. H. Song, Y. J, Jeong, S. K. Hong, B. K. Lee, P. L. Jang, E. L. Yun, "Reliability and Factor Analysis = A Standardization Study of Beck Depression Inventory 1-Korean Version (K-BDD)", *The Korean Journal of Psychopathology*, Vol. 4, No. 1, pp. 77-95, 1995.
- [25] M. Sherer, J. E. Maddux, B. Mercandante, P. S. Dunn, B. R. W. Jacob, "The Self-efficacy Scale: Construction and validation", *Psychological Report*, 51, pp. 663-671, 1982.  
DOI: <http://dx.doi.org/10.2466/pr0.1982.51.2.663>
- [26] J. I. Kim, "An Effect of Aquatic Exercise Program with Self-help Group Activities and Strategies for Promoting Self-efficacy on Pain, Physiological Parameters and Quality of Life in Patients Having Rheumatoid Arthriti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1994.
- [27] T. W. Lee, "Determinants of health promotion behavio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1989.
- [28] Y. K. Kwak, "Emotional Labor, Emotional Intelligence, Health Promotion Behavior and Turnover Intention in Hospital Nurses", master's thesis, Chodang University, Jeollanam-do, 2014.
- [29] E. J. Lee, S. W. Shin, "The Effect of Health Promotion Behavior on Fatigue and Depression among Shift Nurse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5, No. 4, pp. 2256-2264, 2014.  
DOI:<http://dx.doi.org/10.5762/KAIS.2014.15.4.2256>ISSN
- [30] J. S. Kim, S. Y. Jeong, S. H. Kim, J. O. Kim, "Predictors of Emotional Labor and Job Stress on Burnout of Nurses in Long-term Care Hospitals", *Journal of Korean Gerontological Nursing*, Vol. 16, No. 2, pp. 130-140, 2014.
- [31] S. R.. Han, "The Effects of Working Type, Sleep Quality on Depression, Anxiety, Stress in Taxi drivers", Master's thesis, Namwon, Seonam University, 2016.
- [32] S. Y. Hwang, "A Study on the Health Promotion Life Profile and Related Factors in Nurses", Master's thesis, Hallym university, 2003.
- [33] Y. J. Jung, B. N. Doo, "A study of Job Stress, Self-efficacy and Health Promoting Behaviors for Practical Nurses",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Vol. 11, No. 3, pp. 398-405, 2002.

서 해 주(Hae-Joo Suh)



- 2017년 2월 :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17 2월 ~ 현재 : 경희대학교 대학원
- 관심분야 : 기본간호학, 간호중재개발
- E-Mail : mintchocol4@naver.com

조 인 영(In-Young Cho)



- 2016년 8월 :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수료)
- 2013년 3월 ~ 현재 : 동강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만성질환 아동간호, 고위험 신생아 간호
- E-Mail : ciy1024@dkc.ac.kr

김 자 숙(Ja-Sook K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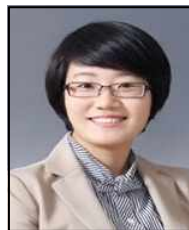
- 2012년 2월 :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14년 8월 :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수료)
- 2013년 3월 ~ 현재 : 동강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기본간호학, 모성간호학
- E-Mail: jskim-98@hanmail.net

김 혜 숙(Hye-suk Kim)



- 1997년 2월 : 조선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04년 2월 :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1998년 3월 ~ 현재 : 목포가톨릭대학교 교수
- 관심분야 : 임상교육, 학생건강문제, 심폐소생술
- E-Mail : gracekim@mcu.ac.kr

김 자 옥(Ja-Ok Kim)



- 2005년 2월 : 조선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12년 2월 : 조선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3년 3월 ~ 현재 : 원광보건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기본간호학, 간호중재개발, 취약계층 삶의 질
- E-Mail: jjaoki-93@wu.ac.kr

김 학 선(Hack-Sun Kim)



- 2009년 8월 :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석박통합)
- 2012년 3월 ~ 현재 : 원광보건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중양간호, 암환자 질적연구
- E-Mail : hskim@wu.ac.kr